

걸리지 않을 거다! 그러면서 폴은 4,500리외를 가로지르는 이 여정을 채 3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에 마쳤던 배들의 이름을 하나씩 나열했네. 비르지니가 탄 배는 두 달 이상 걸리지 않을 거다. 요즘 조선공들은 학식도 풍부하고, 신원들도 아주 능숙하니까! 그러더니 비르지니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정리 정돈을 해두어야만 한다는 등, 새로운 거처를 지어두어야겠다는 등 말을 이어갔고, 또 인젠가 그녀가 자기 아내가 된다면 매일매일 그녀에게 가지가지 기쁨과 놀라움을 안겨주겠다는 말을 했네. 자기 아내라!

……그

생각이 폴을 황홀하게 해주었어. 아저씨, 적어도요, 라면서 그가 말하길, 아저씨는 사는 재미를 위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. 비르지니가 부자가 되면, 우리한테는 아저씨를 위해 일해 줄 흑인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. 아저씨는 늘 우리와 함께일 거고, 삶을 즐기고 노는 것 말고는 다른 걱정거리가 없을 거예요. 그러더니 폴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, 자기가 도취된 그 기쁨을 가족에게 전해주러 갔다네.

커다란 희망 뒤에는 금세 커다란 두려움이 따르는 법이지. 지독한 정열은 늘 영혼을 반대쪽 극단으로 몰아세운다네. 바로 다음 날부터 폴은 슬픔에 짓눌린 모습으로 다시 나를 보러 오는 일이 잦아졌네. 폴은 이렇게 말했지.

“비르지니는 저한테 편지 한 통을 보내질 않네요. 유럽을